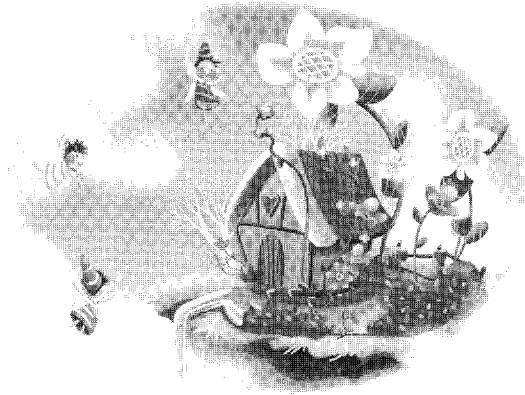


# 대학의 현장실습 제고와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학교기업지원사업 소개



김동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팀 팀장

## 1. 들어가며

산학 간의 연계성을 찾으려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과거부터 있어왔고, 그에 대한 정책이 계속 추진·개선 중에 있으며 관련 사업도 진행 중이다. 그러한 노력은 현재 연일 매스미디어에 보도되는 기술지주회사 등의 설립지원에 대한 정책으로 잘 대변된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세간에 잘 알려진 기술지주회사뿐 아니라 또 다른 특수한 형태의 산-학간 연계매체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소개하려는 '학교기업'이다. 이름에서 쉽게 알 수 있듯, '학교'와 '기업'의 성격을 모두 표방하려는 이 프로그램 역시, 산학의 협력과 그에 의해 창출될 시너지를 기대하는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04년부터 6년째 진행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한 내용을, '학교기업의 개요'와 '과거실적', 그리고 '우수사례' 등 최대한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쉽게 그리고 자세히 설명코자 한다.



## 2. 학교기업지원사업 개요

### 학교기업이란?

학교기업이란 무엇인가? 관련 근거가 되는 법적 기초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산촉법)’은 학교와 산업계의 협력과 진흥을 목표로 만들어진 법률인데, 이 법률의 제 36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학교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산촉법 36조의 ①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좀 더 그 의미를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산업교육기관(대학교·전문대학·전문계고)이 학교의 시설·인력을 활용하여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 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학교기업의 설립 가능하다는 것이며, 이 학교기업 설립 및 운영 주된 목표는 바로 현장적응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교과목과 연계된 새로운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인데 이는 ‘고용창출’의 의미를 포함할 뿐 아니라, 학교기업으로 창출된 이윤을 통한 학교의 재정안정화, 산업재산권의 확보 등의 보다 광범위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 학교기업지원사업 개요

본 사업은 현재 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부지원사업으로, 현존하는(혹은 설립계획인) 학

교기업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한다. 본 사업은 주관부처가 교육과학기술부이며 산업기술진흥원이 전담기관으로, '04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03. 9 :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시행령' 시행
- '04. 3. 22 :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
- '04.11. 1 :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정
- '04. 9~'06. 12 : 제1기학교기업지원사업 추진 (50개 주관기관 선정)
- '06. 1~'07. 12 : 제2기 학교기업지원사업 추진 (50개 주관기관 선정)
- '07. 3 : 학교기업지원사업 전담기관 변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산업기술재단)
- '07. 4 : '07년도 학교기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48개 주관기관 선정)
- '08. 4~'08. 12 : '08년도 학교기업지원사업 추진 (66개 주관기관 선정)
- '08. 10 : '학교기업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 개정
- '09. 2~'09. 12 : '09년도 학교기업지원사업 추진 (68개 주관기관 선정)
- '09. 5 : 학교기업지원사업 전담기관 변경 (한국산업기술재단→한국산업기술진흥원)

요약된 내용을 보자면, 학교기업지원사업은 '04년부터 각 기별로 2년씩 사업이 진행되어왔고, 현재는 2기까지의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08년부터는 3기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과거 수행했던 사업에 대한 간략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에 대한 쉬운 이해를 위해 본 사업의 주요추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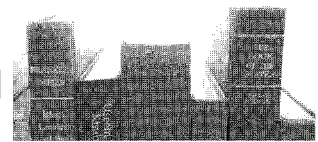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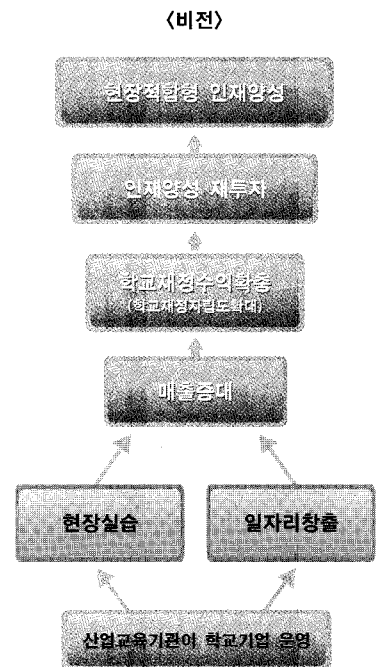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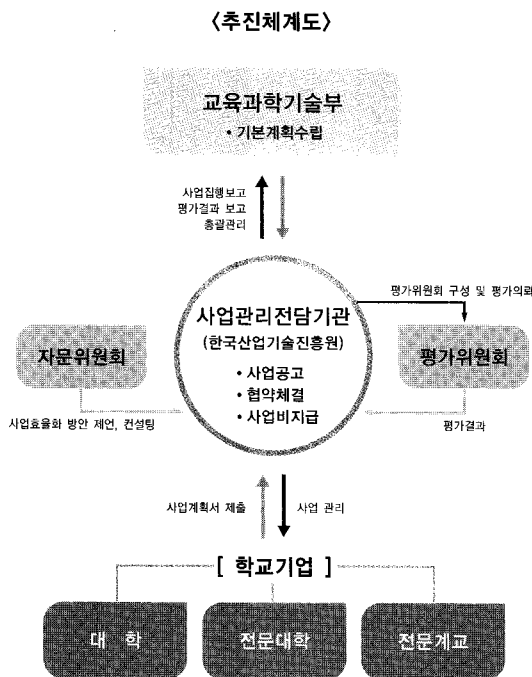


표 1. 추진기간에 따른 지원규모 (예산기준)

연도	사업기간	예산(억 원)	비고
2004	1기('04. 9~'06. 12)	100	40개교 지원
2005		130	45개교 지원
2006	2기('06. 1~'07. 12)	150	50개교 지원
2007		150	48개교 지원
2008	3기 '08. 4~12	150	66개교 지원 대학교(16), 전문대(23), 전문계고(27)
2009		'09. 2~12	150
소 계		830	-

계와 비전을 그림으로 단순화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곁들이면 다음과 같다. 추진체계를 보면 각 학교기업은 본 사업의 주관기관이 되어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산업기술진흥원은 전담기관의 역할을 하여 관계 부처와 학교 사이의 채널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왼쪽 그림) 또한 본 사업의 비전은 서두에 밝혔듯, 설립된 학교기업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을 통한 '현장적합형 인재양성'에 있다고 하겠다. (아래쪽 그림)





그러면, 실제 본 사업에서 수행되는 내용은 무엇일까? 주요 사업내용을 4가지 정도로 분류하여 설명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관련법에 의거하여 학교 내 설치된 학교기업에 대한 운영 지원이 주된 사업 내용이 되겠다. 학교 내 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산·학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치된 학교기업의 기업활동 운영을 위한 운영비·사업비 지원이 바로 그것이다. 둘째로, 설립된 학교기업을 통한 실무중심의 현장실습 교과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현장밀착형 현장실습 교과과정 운영으로 참여학생의 산학교육과정 활성화를 제고한다. 셋째로, 학교기업의 기반시설 활용을 통한 제품생산 및 산업재산권 확보·기술이전 추진 등이 그 내용이 된다. 학교에서 취득한 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을 학교기업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매출의 증대가 다시 학교의 인재양성사업에 재투자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 내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현장실습 참여학생을 고용하고 또는 관련 산업체로의 취업률을 제고시켜 고용창출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는 학교기업의 생산, 판매활동 등에 참여한 참여학생을 학교기업에 신규로 채용하거나, 유사 산업체로 취업을 유도하여 산학 간 미스매칭(mismatching) 현장을 지양함에 그 목표를 둔다.

'08년 3기 사업에 있어서, 국고지원의 규모는 사업비 지원과 운영비지원으로 크게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사업비지원'은 신규설립된 학교기업(또는 본 사업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학교기업)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년 지원금액이 약 2억 5천~4억 5천의 수준인데, 기 지원된 학교기업에 대해서는 과거 수행한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그 지원금액을 조절하고 있다. 그에 반해 '운영비지원'의 경우는, 기존 본 사

업에서 지원된 학교기업, 즉 학교기업의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한 지원이며, 1년 지원금액 수준은 약 5천~1억 5천 정도가 된다.

본 사업에 대한 지원조건의 하나로 전담기관은 각 학교기업에 국고지원 금액에 비례하는 대응투자자금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신규지원' 학교기업은 국고지원금의 50%, '기존지원' 학교기업은 국고지원금의 30% 이상의 대응투자금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지원 학교기업이 학교나 외부기업 또는 지방정부 등 더욱 밀접한 산·학 연계관계를 만들기를 바라는 정책적 기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전문계고는 제외)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크게 '공동성과지표'와 '자율성과지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모든 국고지원 학교기업에 해당되는 기준이며, 후자는 각 학교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수립하고 달성하는, 자율적 목표라 할 수 있다. 공동성과지표에 해당되는 사항은, 1. 현장실습학생수, 2. 매출액, 3. 신규재용인력, 4.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수 등이 주요내용이며, 자율성과지표로는 산업재산권확보, 기술이전, 기술료수입, 신제품개발, 지역사회활동 등이 그것이다. 진행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각 성과지표별로 평가를 받게 되며, 이는 차년도 사업지원의 결정 및 지원금액의 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사업개요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현재 진행 중인 '09년 학교기업지원사업의 중점추진사항을 간략히 살펴보자. 현재 본 사업의 자세한 추진내용은 학교기업지원사업 홈페이지인 [www.sbe.or.kr](http://www.sbe.or.kr) 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09년도 가장 큰 중점추진사항은 컨설팅기능의 강화로 볼 수 있는데, 사업을 진행 중인 학교기업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 재무·세무·법률·기업운영 등, 영세한 학교기업들이 곤란을 겪고 간과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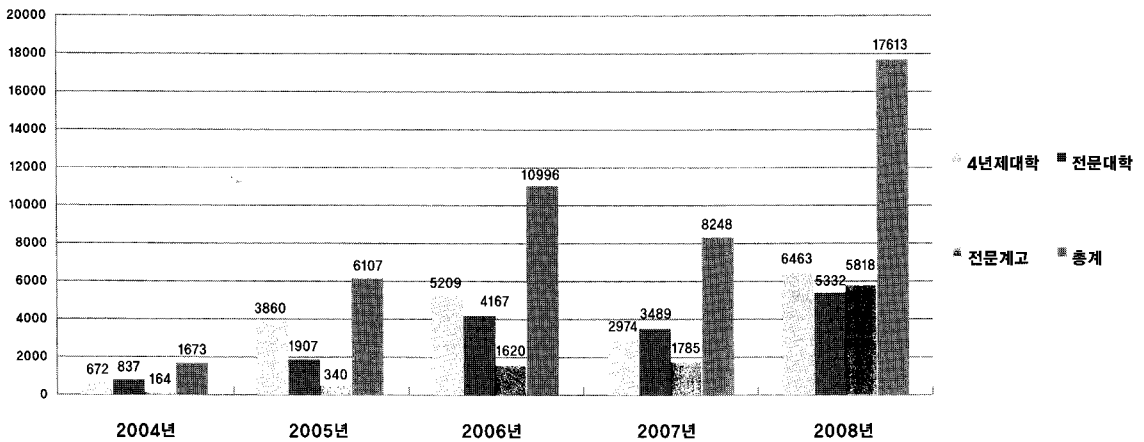
있는 부분에 대해 실사를 통한 직접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그 외, 전담기관이 주최하는 워크숍 및 직무 교육을 통해 사업 총괄자와 실무자들이 정보공유와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하반기에 있을 산학협력EXPO 등 전시회 참가를 통하여 최대한의 홍보를 계획 중에 있다. 이러한 전담기관의 사업적 노력은 현재 '09년 사업의 수혜 학교기업뿐만 아니라, 과거 지원했던 학교기업이나, 추후 지원잠재성이 있는 학교기업 모두를 포함하는데, 정부 예산의 한계로 모든 학교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나 컨설팅, 위

크숍, 교육, 전시회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간접지원의 방식으로 학교기업기반을 구축함에 있어서 노력을 다하고 있다.

### 3. 학교기업지원사업 과거 실적

과거 진행해왔던 학교기업지원사업의 실적은 어떨까? 주요성과지표에 맞춰서 '04~'08년까지의 사업실적을 간략히 요약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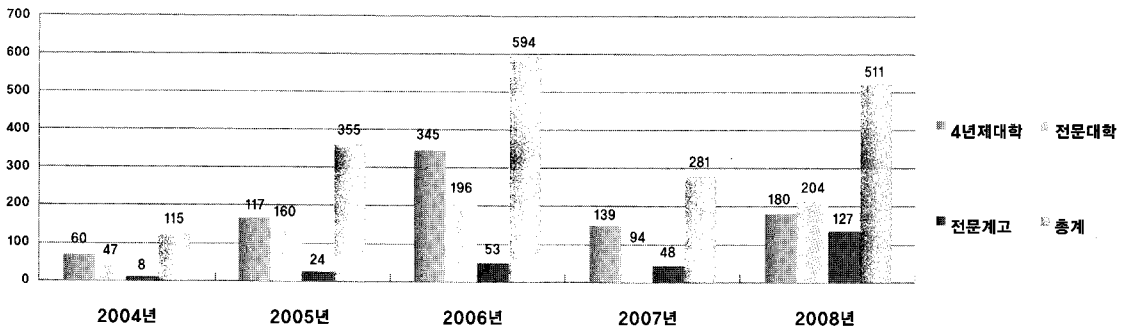
현장실습 (명)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공동성과지표는 바로 현장실습 학생수가 될 것이다. 이 그래프는 학교급별로 그 추이를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실습인원의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중 4년제 대학의 비중이 컸으나 '07년을 거쳐 '08년으로 갈수록 학교급별 비중의 차이는 크지 않다. 몇 년간의 사업수행으로, 전문대학·전문계고의 현장실습 인프라와 효율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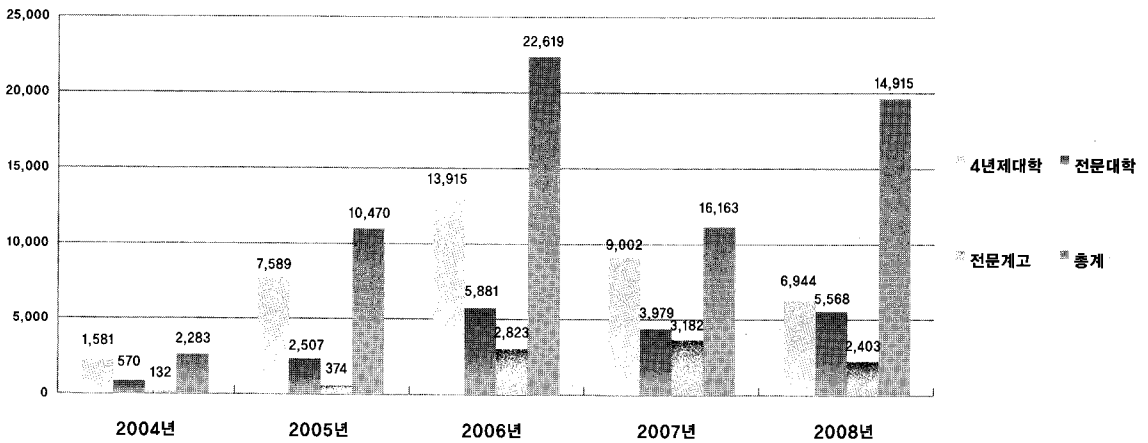
채용인원 (명)



또 하나의 주요한 공동성과지표는 바로 채용인원인데, 이는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한다면, 가장 민감하고도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채용인원수 역시 전체적으로 큰 증가를 보이다가 '07년의 경우 위축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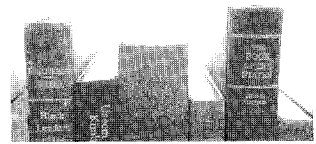
것처럼 보이지만 '08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며, 앞의 그림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갈수록 학교급별 차이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

매출액 (단위: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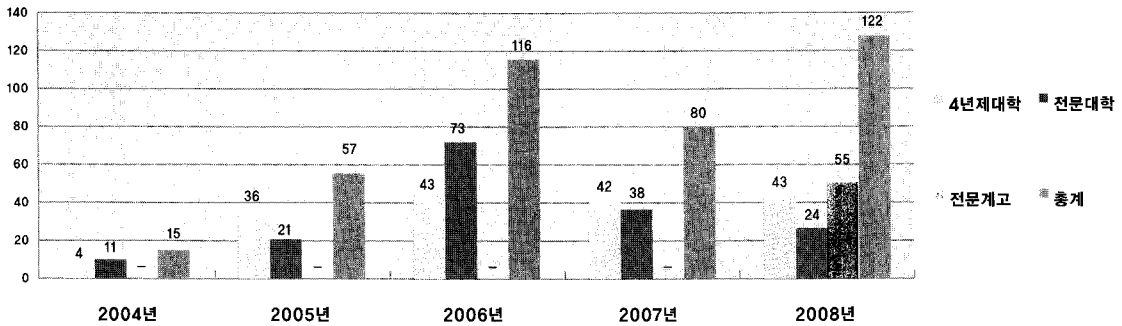


전담기관의 입장에서 주관기관을 평가하는 여러 지표 중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매출관련 성과가 아닐까 한다. 학교기업은 그 태생적인 의의와 한계 때문에, 보통 민간기업과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르며, 결과적으로 매출 등 이윤창출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는 것

도 사실이다. 하지만, Bottom-up 방식으로 학교기업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으며, 정책개선에 대한 요구 등, 구조적인 개편을 꾸준히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러한 결과가 추후 매출액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그림에서 보이는 매출의 증가추세도 뚜렷하다.



### 연구개발성과-지적재산권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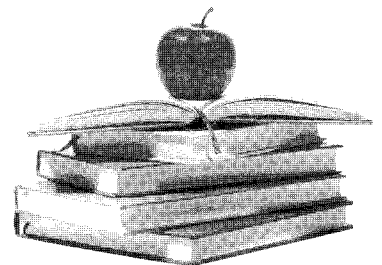


지재권 확보에 대한 성과는 본 사업의 공동성과지표는 아닌 자율성과지표지만 결과를 보이기 위해 그림을 삽입해 보았다. 앞서 미리 나왔던 타 지표들의 결과와 추세가 비슷해 보인다. 전문계고는 특성상 지재권 확보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그러한 결과도 반영되어 있다.

의 의견수렴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으므로, 앞으로 본 사업의 더 큰 발전을 기대해도 되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 추진관련 우수학교기업(수원여자대학)을 소개함으로써, 본 기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 4. 마치며

본 기고에서는, 교육일선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생소할 수 있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인 학교기업에 대한 내용을 가능한 쉽고 간단히 설명을 하고자 하였다. 현재 3기 사업을 진행 중인 학교기업지원사업은 그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며, 현재는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몇몇 한계점을 보이며 주요 대학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학교기업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활동 제한에 따라 사업화에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관계 부처 및 본 사업추진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학교기업의 정책적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Bottom-up 방식





## Best Practice

### ■ 우수주관기관 소개 : 수원여자대학 식품분석연구센터

#### 사업 및 과제 개요

- 학교기업 운영을 통한 재학생의 산학 일체형 현장 실습 교육 시스템 구축
- 국가성장동력에 부응한 바이오 전문인력양성의 특성화 및 전문화 유도
- 지역 전략사업 발전계획에 부응하는 산업기술 단지화 촉진
- 식품·축산물 품질 및 위생검사, 영양성분표시검사 등을 통한 수익사업
-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과 산업체 재직자 직무향상 교육 수행
- 마트, 백화점 등의 유향요소에 대한 위생 점검과 검사, 컨설팅
- 재학생들의 단계별 현장실습과 1:1 교육을 통한 전공심화학습 능력 향상

#### 추진방법 및 과정의 우수성

- 재학생 대부분이 학교기업 현장실습에 참여하여 전문분야 확대
- Step1: 현장실습 기초실습단계  
Step2: 현장실습 전공심화실습단계  
Step3: 현장실습 인턴십 3단계의 현장실습과정으로 현장실습생들의 단계별 실습 실시로 내실 있는 현장실습

- 다양한 현장실습 교육자료 개발로 실습 위주의 교육 진행
- 취업분야의 다변화로 식품·제약 등의 품질관리부로의 취업기회 확대
- 식품산업체와의 신제품개발과 품질관리, 위생관리 등의 산학협력 증대
- 학교기업 순이익을 재학생들의 장학금으로 환원

#### 추진실적 및 성과 ('08년 4월~12월 실적)

- 학교기업 4년간 운영을 통해 당해 연도 27명의 신규 고용인력 창출
- 현장실습 참여 학생 수 학점인정 456명, 학점 비인정 16명
- 매출액 916,283(천원), 순이익 318,294(천원) 달성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계원조형예술대학, 동의과학대학 등 벤치마킹 및 (주)GS리테일, (주)아워홈, (주)롯데삼강, 비알코리아 등 기술지도 및 기술자문건수 58건
- 산학관 맞춤형 교육인원 수 60명(식품위생관리 및 품질분석 전문기능인력양성과정 및 식품안전관리자 양성과정 등)
- 경기도로부터 대학 우수 연구센터인 '산업패밀리 기관' 지정
- 학교기업 식품분석연구센터 센터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표창'
- 학교기업 식품분석연구센터 학교기업 담당 '화성시장표창'
- 교육과학기술부 평가로 '학교기업지원사업 우수기관 선정'





## 지역발전기여도

- 서울 및 수도권 식품위생검사기관 대학은 수원 여대가 유일함
- 산업체의 방문 기술자문 및 지도 컨설팅
- 식품 제조업체의 품질 향상에 기여
- 거래업체로서 홈에버, 롯데마트 위생관리 및 풀무원, 기린, 삼립식품, 롯데칠성음료 등 지역의 산업체 품질관리 담당  
⇒ 지역 식품산업체의 생산제품의 신뢰성 있는 품질관리를 통한 국민건강에 이바지함
- 안산시-화성시-수원시와 대학 R&D의 생산거점 연계 바이오벨트 육성(바이오산업, 식품산업, 제약 산업 연계)
- 화성시 향남제약단지애 필요한 품질분석 인력의 장기적 지원  
- 이공계 졸업생들의 지역 근무 회피하는 경향에 지역에서 인력공급
- 저소득층 실업대책 추진 및 청년 취업지원과 알선
- 학교기업 식품분석연구센터는 설립 4년 만에 약 1,300개 산업체와 산학협력 유지
- 롯데 중앙연구소 및 롯데상품시험연구소와 산학협력 MOU 체결, (주)동원데어리푸드와 산학협력체결 등 기타 기업체의 산학협력체결 및 품질검사 위탁 협약 등
- 학교기업 연계 산업체의 제품개발 및 기술지도에 타과 전공 교수님과의 연계 매개체 역할을 학교기업이 담당
- 산학관의 연계 연구 활동 증가(예, 화성시 메뉴 개발 등) ■

## 김동균

영남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1993년부터 산업자원부에서 근무하였다. 2001년부터 산업기술진흥원의 전신인 산업기술재단에서 총무팀장, 산학협력팀장, 기술확산팀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산업기술진흥원의 산학연협력팀의 팀장으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정책적 관심사는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 및 기업 활성화, 기술문화 확산 등이다.

## 학교기업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www.sbe.or.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http://kiat.or.kr>

## 수원여자대학교 식품분석연구센터

<http://farc.swc.ac.kr>

